



2005 EA (Enterprise Architecture) Conference를 참관하고



전산개발운영팀
이진구

EA(Enterprise Architecture)란

기업 내 업무와 IT의 구조를 일치시켜 효율적 업무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전산화 구성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전산화 구축을 통하여 기업은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기업은 '신속함'에 의해 가치를 창출하고 '경비 절감'에 의해 위험 요소를 제어할 수 있다.

첫날 여정

2005년 10월 22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의 여유를 뒤로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주말이라 그런지 여행 목적으로 수속 절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

수속을 마치고 9시간 동안 비행을 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 이번 컨퍼런스 참가 전에 세계적 문헌정보 서비스 기관인 톰슨사이언스에 방문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홍보와 필요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EA Conference가 열리는 라스베이저스로 이동하지 못했던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니 오후 1시정도 한국에서는 새벽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샌프란시스코란 도시는 LA와 같이 살벌하고 분주한 도시가 아닌 약간의 여유와 나름대로의 전통을 간직한 도시이며 금문교나 유명한 페이블비치라는 골프장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공항 수속을 마치고 바로 자동차를 렌트해야 했다. 일정상 모든 이동은 자동차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는 필수였던 것이다. 미국지리를 모르는 우리로써는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량을 빌려야 했으나, 네비게이션이 장착된 차량을 구하기는 힘든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차량을 렌트하고 공항 근교에 예약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렇게 미국에서의 1박이 시작되었다.

톰슨사이언스 방문을 위해 산호세로

다음날 우리는 톰슨사이언스를 방문하는 것으로 미국에서의 첫 번째 일정을 시작했다.

톰슨사이언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시간 정도 아래로 이동해야 하는 산호세에 위치하고 있었다. 산호세는 도시의 번잡함보다는 전원도시를 연상케 할 만큼 여유롭고 한산해 보였다.

약속을 하고 사무실로 들어선 순간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쾌적한 사무 공간과 회의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한국특허정보원도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생각에 부러운 마음이 날 사로잡았다. 회의실로 안내되고 약 2시간에 걸친 서로의 소개와 질문들이 이어야졌다. 웹서비스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지와 우리의 향후 발전 방향, 선행기술조사 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KPA에 대한 관심이 주류를 이루는 회의였다. 이 시간동안 우리는 거대하게 밀려오는 지적재산권의 파도와 정보 전쟁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정보 보급업체의 대항화, 세계 문헌자료의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급이 톰슨사이언스의 목표인 듯 보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특징은 Patent Map이었다. 지형도와 같이 세분화된 구성이 우리의 2차원적 분석방식보다 훨씬 강력해보였다. 이러한 서비스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특허정보원이 나아갈 지표는 데이터의 무작정적인 보급이 아니라 특화된 데이터, 가공 분석된 데이터의 보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전산시스템이 동부로 이전하는 바람에 전산시스템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LA로 이동

톰슨사이언스 방문을 뒤로 하고 다음 여정을 위해 LA



로 향했다. 산호세에서 바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는데는 약 8시간, 오늘 하루에 이동할 수 없는 거리라는 판단에서 선택한 경로이다.

3시에 산호세에서 출발하였다. 네비게이션과 표지판, 지도에 의지한 채 차에 올랐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았던 운전도 어느 정도 미국 스타일로 변해가고 있는 듯하다. 바로 Express-Way로 들어갈 수 없어서 2시간 가량 Free-Way로 이동해서 LA행 Express-Way로 이동해야 했다. 미국은 특이하게 Free-Way, High-Way, Express-Way로 도로가 나누어져 있다. 우리는 흔히 High-Way를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녀본 결과 High-Way는 우리의 지방국도 정도가 맞는 듯하다. LA로 이동하는 동안 가장 크게 다가온 점은 정말 넓고, 방대하다는 것이다. 30분을 지나도 하나의 농장이 끝나지 않는 방대함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자원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5시간 동안 직선으로 연결된 고속도로를 타고 아래로 아래로 향했다. 끝이 없을 것 같던 직선도로의 끝에 드디어 Los Angeles 라는 표지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 벌써 주위는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도 어두운 도로를 1시간 30분가량 달려서 드디어 LA에 도착했다. LA는 많은 도로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LA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길을 다 모른다고 한다. 처음 차량으로 이동했고 거기다 저녁에 이런 길에 접어들었으니 고생할 것은 뻔한 일이었다. LA도로에서 2시간을 소비하고 드디어 숙소에 도착해서 여정을 풀었다. 내일의 이동을 위해 잠을 청했지만 시차적응이 안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간신히 잠이 들고 잠깐 잠들었다 싶었는데 벌써 날이 밝아 있었다.

EA Conference를 위해 라스베이거로

아침을 먹고 본격적인 EA Conference 참가를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향했다.

라스베이거스는 LA에서 사막도로를 4시간 정도 달려야 하는 곳이 위치해 있다. 사막을 달리는 동안 미국의 정신은 개척정신에서 시작된다는 어느 연설문의 서두가 생각났다.

4시간 달려서 드디어 사막 가운데 우뚝 선 도시가 보였다. 라스베이거스다.

라스베이거스는 낮에는 아주 허름한 도시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향락의 도시로 변한다. 또 한 이곳은 도박



과 매춘이 합법화된 미국 내 유일한 도시이다. 그만큼 도시에서 나누어주는 진단지도 이와 관련된 것들뿐이고, 호텔마다 슬롯머신이 Information보다 먼저 사람들을 맞이한다.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내일의 EA 참관을 위해 짐을 풀었다.

본격적인 EA Conference를 참관하면서

세미나 주최의 목적

- ◆ 비즈니스 운영 및 기획 임원
 - 기업의 전략들을 전향할 방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비즈니스와 IT의 전략 협력방법에 대한 이해.
 -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IT 조직을 창조하고 운영·유지하도록 함에 있어서 귀하의 역할인정 및 인식.
 - e-Business 환경에서 비즈니스 전략 방식을 변화시켜온 방법론 학습.
 - IT리더들이 궁금하고 질문할 비즈니스 기술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
 - 효과적인 비즈니스/IT 협력창조.

◆ IT 전문가 그룹

-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Digital planning, Enterprise Architecture 및 전자적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절차와 이슈들에 대한 이해.
- 전략적 비즈니스 전망으로부터 IT 발견.
- 조직의 변화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
- 효과적인 비즈니스/IT 협력 창조.

EA Conference 세미나 참관기

EA Conference는 2005년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7박 8일에 걸쳐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EA 컨퍼런스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시간 관계상 이틀 동안 필요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J.W 메리어트 호텔은 도시 외곽에 위치하여 우리가 머물던 호텔에서는 약 30~40분 정도를 차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에 있었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하나의 portfolio 관점을 통하여 한국특허정보원의 Business와 Information Technology를 정확히 정렬 시키는데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법(기술)습득과 오랜 경험있는 EA 전문가들, 아키텍처들, IT 전문가들, 탁월한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함으로서 정보 변화와 필수적인 사업의 수립에 필요한 정확하고 유일한 환경과 배경 및 정보획득에 있었다.

EA의 선진 트렌드와 현재 국내의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을 위해 컨퍼런스를 참관하게 되었으며, 실제적인 방법론이나 구축 방안에 대한 성과보다는 트렌드 파악과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EA 협의회 측의 무리한 일정에 의해 다소 피곤한 상태에서 컨퍼런스를 참관하게 되었으며, 일단 놀란 점은 한국이 EA 부분에서는 선진국이거나 하는 점이었다. 참가자 300여 명 중 대부분(90%이상)이 미국 전문가들이었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별 참여 인원은 한국이 17명, 호주 4명, 일본 2명, 칠레 2명 등 한국의 전문가 참여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아 IT, 특히 Business 분야에서 한국은 상위에 속하는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다.

금번 컨퍼런스의 방향은 한국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왜 EA를 해야 하는지?' 또는 '구축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와 같은 수행 단계의 이슈가 아닌 EA가 구축된 상황에서 어떻게 더 잘 활용하고 이용하여 비즈니스에 Value를 줄 수 있느냐가 주요 관심사였으며, 더 나아가 SOA(simple Oriented Architecture),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Web Service와 같은 최신기술과의 접속에 관심을 가진 연구, 발표가 많았다.

컨퍼런스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 많았으나,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이나 로비에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와의 테이블 미팅을 통해 실제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용이하였다. 국내의 경우 세미나라면 발표에 그치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생각과 함께 국내 컨퍼런스에서도 이러한 방식진행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겼다.

우리는 여러 세미나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나누어 듣기로 하고 세미나에 참가했다. 내용을 일부는 전부터 알고 있던 이론이었으나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실무에서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이론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EA의 한 부분인 BPM, BPR등을 적

용할 방안 및 솔루션도 몇몇 소개되고 있어 한국특허정보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 방안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한국으로 돌아오며

EA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시 4시간 가량 사막도로를 달려 LA 공항 근처로 이동했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 마무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공항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미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날 8시경 숙소를 나와 렌트카를 반납하고, 공항 이동 버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다.

수속을 받기위해 9시경 탑승수속을 하기 위해 줄을 섰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맘이 편안했다. 그런데 1시간가량 수속을 할 수 없었다. 게으른 수속담당자 때문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뒤에서 항의하고 난리가 났을 법도 하나 아무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미국의 한 단면일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잠시 동안 생각을 잠겼다. 이번 미국 여행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톰슨사이언스에서 거대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세계화 추세에서 한국특허정보원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 세계적인 EA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위치 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적용할만한 기술이나 솔루션에 대한 고급정보를 얻고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가지적 효과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개개인이 느낀, 자신이 감당해야 할 IT 전문가로서의 위치와 한국특허정보원에서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계화의 추세에서 한국특허정보원을 다른 경쟁업체보다 먼저 세계화의 일선에 앞세우는 일, 이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며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탈피가 필요하다는 생각하나를 더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다. 